조선대 新·舊 이사진 20년만의 대좌

정이사 체제 전환 앞두고 17일 사학분쟁위 출석…설전 예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 교수평의회 등 현 학교 구성원측과 박철웅 전 총장 일가를 비롯한 구 재단측 대표자들이 오는 17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만난다. 현 조선대 구성원측과 구 재단측이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지난 1988년 조선대 학내 민주화 운동 이후 사실상 20년만에 처음이다.

현 조선대 법인은 20년 동안의 임시이사 체제를 청산하고 정이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구 재단측은 '정이사 추천권을 직전 이사(1988년 조선대 임시이사 체제 전환 직전 이사)에게 달라'며 학교 운영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가 이들을 부른 것은 양측의 주장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이다. 사학분쟁조정위 관계자는 14일 "양측의 의견을 종합 판단하기 위해 같은 날 위원회에 참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며 "정이사 체제로 가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어떤 소요도 없을 것이란 판단이 선다면 정이사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학분쟁조정위 자리에서 양측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측은 '박철웅 전 총장 일가'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구 재단 측은 '직전 이사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대 측에서는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등 산하 단체들의 장을 포함한 15명 가량이 대표단을 구성하고, 구재단 측은 직전 이사인 박 전 총장의 부인 정애리시씨, 박 전 총장의 2남 박성섭씨, 강모 전 이사 등 5~6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명실상부한 양측의 대표 선수들이 총망라되는 셈이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법인 정상화 추진 과정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구재단 측의 행태를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난 만큼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재단 측 역시 쉽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전 이사 자격으로 사학분쟁조정위 출석을 통보받은 정애리시(84)씨는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조선대는 임시이사 체제 20년 동안 후퇴했다"며 "'3분의 2이상의 (정)이사를 직전 이사가 추천하겠다'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법인은 현재 10명의 새 이사 후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6명의 개방이사(3명) 후보를 추천받는 등 법인 정상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사학법인 5곳 관선 임시이사 체제 운영

재단 측 비리나 학내 분규 등으로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광주·전남 사학법인은 모두 5개.

법인 정상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 등 7개 학교)를 비롯해 유성학원(세종고), 송암학원(진흥중·고), 나주 아신학원(나주대학), 여수 춘당학원(여양중·고) 등 5개 법인, 13개 학교다.

1997년 옛 재단 측의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아신학원은 지난 2006년 교육부로부터 정이사 체제 전환 요청을 받았지만 옛 재단 측 인사의 복귀를 우려한 대학 구성원들이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시이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설립자와 이사장 간 운영권 다툼으로 지난 2000년 4월 광주시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한 유성학원도 이사회 구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한 끝에 아직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송암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춘당학원은 2006년 6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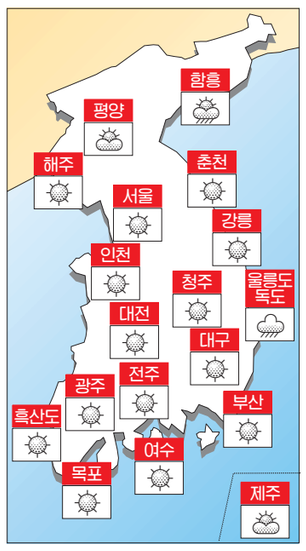
/정상필기자 camus@

영하권 추위

1월 15일 (음 12월 8일) ◇전국날씨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 조금	-3~3℃
목 포	구름 조금	-2~3℃
여 수	구름 조금	0~5℃
완 도	구름 조금	-1~4℃
구 례	구름 조금	-6~4℃
해 남	구름 조금	-3~4℃
장 흥	구름 조금	-4~5℃
고 흥	구름 조금	-2~5℃
순 천	구름 조금	-6~4℃
영 광	구름 조금	-4~1℃
진 도	구름 조금	-2~4℃
전 주	구름 조금	-5~2℃
남 원	구름 조금	-6~2℃
흑산도	구름 조금	0~2℃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6:41 18:52 썰물 11:52 --:--
여 수 밀물 01:26 13:33 썰물 07:17 20:02

▲해뜸 07:41 ▲해짐 17:43 ▲달뜸 11:20 ▲달짐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 씨						
최저/최고	-4/1	-3/3	-2/4	-3/5	-1/7	1/6

연세대·서강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

"수능 점수 공개땐 정시 논술 폐지"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서울지역 사립대학들이 수능등급제가 폐지되고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공개되면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는 논술고사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수험생들의 논술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는 2009학년도부터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수능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공개할 경우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도 수능점수가 공개되면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인문계열은 논리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자연계열은 수능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굳이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도 수능점수가 공개되면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려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인수위의 대입정책 발표 뒤 2009학년도 입시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양대도 "수능점수 공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예측은 혼란만 초래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수능점수가 공개돼도 수시논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지금도 정시모집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정원의 절반 가량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정시 논술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가정집 불 70대 중태

14일 오후 3시께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김모(78)씨 집에서 불이나 김씨와 동생(73·대서면 송림리)이 2~3의 중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의 집 거실 소파에서 최초 발화된 점으로 미뤄 콘센트 누전으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불은 내부 93㎡ 중 거실 등 2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 첫 삽 어린이 환경교육장 역할을 하게 될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 기공식이 14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구민체육센터 인근에서 14일 열렸다.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이 도서관은 4천96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열람실과 서고, 시청각실, 문화·취미교실 등을 갖추게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버림받은 애완동물의 비애

광주 지난해 356마리 안락사

주인에게 한 번 버림받은 동물은 새 주인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대신, 비운(?)의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버려진 개와 고양이는 모두 1천399마리로 이 가운데 25%인 356마리가 새 주인을 찾거나 다른 곳에 재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 처리됐다.

이들 동물들은 모두 질병에 감염돼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것들로, 개의 경우 대부분 심장사상충 감염, 고양이는 전염성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

광주에서 버려진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소에 30일 동안 수용된 후 감염여부를 판정받아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안락사 된다. 일부 건강한 개와 고양이는 재입양된다.

동물보호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호기간이 10일로 단축됨에 따라 안락사되는 동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주인에게 입양된 경우는 개가 656마리, 고양이가 181마리였으며 주인에게 돌아간 경우는 개와 고양이가 각각 117마리와 1마리에 불과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나주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18건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4일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사진〉 등 18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날 보물로 지정예고된 문화재는 현재 알려진 건칠불(乾漆佛) 중 가장 이른 시기인 고려 후기에 제작된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과 여말 선초의 '나주 불회상 건칠비로자나불좌상', 불교조각과 건축, 공예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여말 선초의 '구례 천은사 금동불상'이 포함됐다.

또 조선 전기의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도 대상이다.

불교 회화 가운데에는 17세기 영산회상도의 양식을 보여주는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화', 조선 최고 화승인 색민의 대표작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화', 색민의 스승이었던 의겸의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와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등 4점이 포함됐다.

공예분야에서는 '담양 용흥사 순치원년명 동종', '여수 흥국사 강희4년명 동종', '고흥 능가사 강희37년명 동종', '순천 선암사 강희39년명 동종' 등 조선시대 동종 4점이 들어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전한 스쿨존 운동' 효과 어린이 교통사고 크게 줄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남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1천44건으로 2006년 1천218건에 비해 14.3%가 감소했다. 광주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도 지난 2007년 771건이 발생, 2006년 786건에 비해 1.9%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운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